

2021년 4월 23일

교구 여러분

대주교 마에다마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조치 (제 11 차)

+주님의 평화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입니다만,
오사카교구내의 오사카부와 효고현에 대해서, 정부는 긴급사태
선언의 발령을 검토해 정식 결정을 기다리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또, 와카야마현 내의 감염자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1월의 긴급 사태 선언과 비교해서,
보다 강한 활동의 억제를 요구하는 긴급 사태 선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싶습니다.

제 10 차 문서에서 주일미사는 불요불급한 모임이 아니라,
필요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주일 미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무이지만,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가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절박한 사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교회차원에서도 교회 안의 활동을 제한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맹위는 기존의 바이러스에서 변이형
바이러스로 변화하여 감염력을 더해 우리 가까이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사카 교구 내의 3 개 부현에서는 감염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루하루 기도 속에 조속한 종식을 기원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습을 바꾸어 우리의 삶을 좀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긴급사태가 선포된 지역은 긴급사태선언 기간내의 공개미사를
중지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공지사항으로 신자들에게 공지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4월 25일(일)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공개 미사를 중지해 주십시오.

2. 기본 대책은 2020년 11월 1일에 일본 가톨릭주교협의회가 발표한 '일본 가톨릭교회의 감염증 대응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3. 공개미사 중지기간 중 오사카교구 모든 신자들에게 주일미사를 집전하는 의무를 관면합니다.
각자가 가정에서 성경을 낭독하고 기도를 드리거나 묵주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권합니다.

4. 사목담당자는 공개미사가 중단된 가운데서도 직접 접촉을 가능한 한 피하면서 다른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신자분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5. 긴급사태 선포 중지 등 상황이 변경될 경우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 주요외국어판은 순차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이상.